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화 수요일 : 3월 5일(수) 사 순 절 : 3월 5일(수)~4월 19일(토)

종려 주일 : 4월 13일(주일) 고난주간 : 4월 13일(일)~4월 19일(토)

성화 목요일 : 4월 17일(목) - 세족식

성화 금요일 : 4월 18일(금) - 예수 수난 영화 감상

성화 토요일 : 4월 19일(토) - 달걀 포장 및 부활절 전도

부활 감사절 : 4월 20일(주일) - 부활절감사/새생명초청/총동원/세례식

3. 태신자 작정서를 작성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태신자 작정 및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첨부해 드린 태신자 작정서를 작성하여 헌금함에 봉헌해주세요.
(태신자 대상 : 가족과 친지, 이웃과 동료, 학교와 기업 등)

4.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中), 이다남(병가), 박영대(병가), 임명순(무릎인대파열)
김혜숙 권사(디스크 협착증, 통원치료), 오민지 집사(출산 회복, 태아 건강)

5. 2025년 3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2.2 ~ 3.3)

3/16(일)-박태성 성도(-2.17) 3/02(일)-김주하 어린이 3/24(일)-정원희 학생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03/16	사순절(2주) / 태신자 작정(2주)
03/20	경기서지방 교역자 기도회대신
03/23	사순절(3주) / 태신자 작정(3주)
03/25	아하브코업 장미모임
03/30	사순절(4주) / 태신자 작정(4주)
	선교 헌신의 주일모로코 소개
04/01	첫빛이 일삭예배(성찬예식)
04/03	산상 기도회
04/06	사순절(5) / 태신자 만남(1주)
	직원회 (1/4 분기)
04/11	대한민국임사정부 수립기념일
04/13	종려주일
04/17	성화 목요일세족식, 가장별
04/18	성화 금요일예수 수난영화 감상

주일 사랑 운행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분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3/16	이광근 안수집사
3/23	임명자 집사
3/30	임명숙 집사
4/06	김혜숙 권사
4/13	정애자 권사
4/20	박제연 집사
4/27	이광근 안수집사



주사랑 8권 11호 | 2025년 3월 16일
창립 2017.11.25 | 사순절 두 번째 주일 / 태신자 작정 ②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사순절 2주 태신자 작정주일②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2)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 태산자작정주일 ②) 인도: 집례자

- ※ 목도 시편 27:1, 4~7, 14 인도자
- ※ 찬송가 찬 619장 다같이
(놀라운 그 이름)
- ※ 사도신경 다같이
- ※ 주기도문 찬 635장 다같이
- 성서교독 No.125 사순절(2) 인도자/회중
- 찬송가 찬 254장 다같이
(내 주의 보혈은)
- 대표기도 이광근안주사
(남연도회장/재정부장)
- ※ 성경봉독 창세기 15:1~11 (구 18) 이광근안주사
- 광고 인도자
- 말씀인도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주신 약속 담임목사
- 봉헌찬송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같이
(헌금위원: 이종빈 학생)
- ※ 축도 담임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금함에 넣어주세요)

- 십일조 : 김혜숙 이광근 박제연
-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한승훈
- 감사헌금 : 김혜숙(삼방) 박태성 이광근 박제연(자녀) 전복순 한승훈 임명순
- 월삭감사 : 이광근 박제연
-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철 한은총 한태민 한하락
-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한승훈 임명순
- 선교헌금 : 이광근 박제연
- 구제헌금 : 이광근 박제연
- 건축헌금 : 이광근 박제연
- 후원헌금 : 독지교회 세한교회 조항자 아하브코업 무명(하나은행)
- 성미 : 조항자(수원순복음, 20kg 2포) 농협(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비전기도회

오후 1:0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말은 이
성경봉독 누기복음 9:28-36 (신 107)
말씀제목 예수님의 참 모습을 체험한 자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발립보서 3:13-21 (신 321)
말씀제목 하늘의 사면권을 받은 사람들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부모님 중
성경봉독 열왕기상 20:35-43 (구 553)
대표기도 자녀들 중
말씀제목 말씀 앞에서 울른 신앙과 태도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누기복음 13:31~35 (신 119)
말씀제목 고난 받는 의인들을 위한 메ഴ이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월~금)
16일일 눅 9:28-36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아는 자
10일월 눅 8:26-39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
11일화 눅 8:40-48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사
12일수 눅 8:49-56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13일목 눅 9:1-9 예수로 인한 축복 두려움
14일금 눅 9:10-17 좋은 것을 먹이는 목자
15일토 눅 9:18-27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일일 눅 9:28-36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아는 자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기타 기관 선교

오픈도어즈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원
모퉁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우고용마을

국선교(오주교훈스쿨)



해외선교(모로코)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 ⑥ 예레미야 25장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바벨론의 포로생활은 몇 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나요? (렘 25:11~13)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 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 ⑦ 예레미야 26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유다의 종교지도자들이 처형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통해 예레미야를 구원하게 하시는데 누구인가요? (렘 26:24)
사반의 아들 () 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나라
- ⑧ 예레미야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멩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시드기야를 찾아가 예언하라고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렘 27:1~2, 6)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멩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 을 예언함이나이다
- ⑨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에게 포위되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의 고난처럼, 예루살렘의 도성이 바벨론 침공으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문을 기억하라 선언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렘 33:2~3)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 내가 내게 ()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 을 내게 보이리라
- ⑩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인가요? (렘 33:6~9)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 하며 고쳐 닦게 하고 () 과 () 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 와 () 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 이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재분배 해드립니다)

① 예레미야 21장은 유다 왕국의 말기에 유다를 통치했던 악한 네 왕 곧 여호아하스·여호야김·여호야킨(여고냐)·시드기야의 비참한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바른 통치는 무엇인가요? (렘 22:3~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와 ()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지의 손에서 건지고 ()과 ()와 ()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하리라

②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렘 22:9)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을 버리고 ()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③ 이사야 23장은 이스라엘의 심판 이후에 회복을 위하여 보내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고 있는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요? (렘 23:5~8)

여호와의 말씀이나라 보라 때가 이르러니 내가 다윗에게 ()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와 ()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④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와는 전혀다르게 당시 선지자들은 어떤 죄를 범하고 있었나요? (렘 23:1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⑤ 예레미야 24장은 두 무화과 열매의 환상을 통해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할 구원과,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할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중한 예언과 성취를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렘 24:7)

내가 ()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이 되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16)

을미사변에 가담했다가 일본으로 망명한 우범선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03년 고영근에게 아버지가 암살되어 가세가 심하게 기울어졌고, '친일파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따라붙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머니인 '사카이나카'를 따라 일본으로 도망쳐 공부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정착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일본식 이름인 '스나가 나가하루(須永長春)'로 바꾸고, 히로시마현립 쿠레중학교에 입학하여 일본에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일본에서조차 조생진(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극심한 차별과 천대를 받았습니다. 뼈를 깎는 멸시와 천대를 참아내며, 학업에 열중하여 도쿄국제대학 농과대학 농과실과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농학박사의 학위를 받았으며, 세계적인 육종학자가 되었습니다.

광복 후 지속적인 가난에 시달리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학자에게 "조국으로 건너와서 우수한 농산물을 개발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학자는 아버지의 오명도 씻고, 조국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1950년 한국에 돌아왔고, 초대한국농업과학대학 연구소장(1950~1953), 초대중앙원예기술원장(1953~1958), 초대농사원 원예시험장장(1958~1959) 등의 직임을 맡아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로부터 한국정착금으로 100만 엔(현재 물가로 20~30억 원)을 지원 받았지만, 이 학자는 대부분의 돈을 한국에 뿌릴 우량종자를 구입하는데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농가에도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작물인 감자, 배추와 무, 쌀 등의 우량종자를 개량했고, 선진국의 대량 농업 생산 기술도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적에도 '친일파의 아들'이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학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1959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화포장>이라는 훈장을 받았는데, 훈장을 받던 날 집에 돌아와 '마침내 나의 조국이 나를 인정해주었다'며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김병구 위원장은 "우리는 이 사람을 대마도वाद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우장춘(禹長春) 박사입니다.

세상에 팽배한 교회의 좋지 않은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기꺼이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사람들의 멸시를 참아내신 것처럼, 의인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1	사도신경		다 같이	895	제2차 남북조 전쟁	대하 16:1
2	찬송가	찬 449장	다 같이	886	북조 엘라의 등극(~885)	왕상 16:8
3	대표기도		자녀 중	885	북조 시므리의 모반	왕상 16:16
4	성경봉독	왕상 20:35~43	말은 이	885	오므리 왕의 등극	왕상 16:23
5	말씀인도	올바른 신앙과 태도	부모님 중	824	아합의 등극	왕상 16:29
6	합심기도		다 같이		엘리아의 사역	왕상 17:1-24
7	헌금기도	찬 452장	말은 이	860	아합과 벤하닷의 허무한 대결	왕상 20:1~12
8	주기도문		다 같이		하나님이 아합을 위해 싸우다	왕상 20:13-21

■ 들어가는 말

북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2차 침공까지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두 승리합니다. 하지만 아람 왕은 벤하닷이 행복해오자 기꺼이 행복을 받아주며 평화 조약까지 맺고 벤하닷을 아합 왕 마음대로 돌려보냅니다. 아람과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참여하시고 승리케 하신 여호와와의 전쟁이었는데도,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에 불순종하는 아합 왕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몹시 분노하시며 아합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첫째, 스스로의 생각을 옳다고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35~37).

하나님은 아합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한 선지자에게 기이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친구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치라'고 명령하지만 거절하고 맙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라고 말한 것은, 선지자의 이상한 요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합니다. 또 '치다'라는 동사 '히키'는 주로 전쟁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죽일 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폭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긴 친구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사자에 물려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은 '친구를 치는 것'이 큰 죄처럼 보이고, 친구를 치지 않는 것이 도리에 맞는 선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선지자는 또 다른 친구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치라고 요청하였고, 친구 선지자를 쳐서 몸을 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뿐 아니라 마음과 행동과 삶 전체로 순종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모두 이해할 수 없거나, 인간적인 도리와 상식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과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울 수는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38~40).

얻어 맞아 성처투성이가 된 선지자는 자신의 눈을 수거능로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서 왕을 기다립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을 가린 이유는 선지자와 왕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고, 왕이 자신이 선지자인 것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왕을 맞은 선지자는 '자신이 전쟁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잘 지키라고 하였고, 자신이 이런 저런 일을 보는 동안 그가 사라졌다며,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을 전쟁터에서 포로를 놓쳐버린 병사로 분장한 것입니다. 아합은 내가 결정한 너의 판단대로 당해야 한다고 답을 합니다. 비록 전쟁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눈이 안보이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약속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언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왕에 행위에 대한 판결을 말합니다. 결국 아합은 변장한 선지자의 유도 질문에 빠져 자신을 향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기껏 전쟁에 이기고도 패배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의도가 좋아도 율법을 어겼다면 부인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벤하닷의 신하들에게는 자비로운 왕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둔한 왕이었습니다. 함부로 써버린 자비 카드로 인해 자기 몫의 자비조차 챙기지 못하는 아합 왕의 미련한 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에 대한 만족감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41~43).

하나님이 멀하기로 작정했는데 아합은 자의로 풀어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자기가 임의로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를 어긴 악한 인물로 야간, 사울 왕에 이어 아합 왕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중 하나는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표명 문제입니다. WCC가 기독교 기본 교리와 대치되는 가장 큰 문제는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한 평화와 선교라는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거짓 교리를 앞세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외면한다면,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행 4:12).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요 14:6).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론의 핵심은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이지, 결코 기독교의 독선과 아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만을 섬기는 주사랑교회가 됩시다.

■ 맺음말

하나님 말씀의 무게는 심히 무겁고, 그 가치는 중대합니다. 벤하닷이 약속한 성읍들도 중요하고, 왕을 위한 대로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무게만큼 중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무게가 내 생명의 무게 이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닌, 나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긴 자비심을 선택한 아합에게 자비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는 매우 혹독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환심을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갈 1:10).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